

西伯林사회의와 한국看護員

康 圭 淑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차 례

1. 伯林의 분단상
2. 西伯林의 政治的 地位와 市政府
3. 西伯林의 일반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4. 西伯林의 노동시장과 간호원의 수급상황
5. 西伯林의 외국인노무자 정책과 한국간호원
6. 한국看護員의 人氣와 그 意義
7. 한국看護員의 인적사항과 결혼문제
8. 결어(結語)

西伯林은 共黨東獨의 中央에 위치한 특수지역이다. 본 지역에는 1973年 한국총영사관의 설치되기 이전부터 많은 우리看護員들이 西獨으로부터 전입하여 活動하고 있었다.

필자는 1976年 4月부터 지난 3月까지 2年間 西伯林주재 노무관으로서의 근무를 통하여 체험한 사실 중 몇 가지를 題제에 맞추어 紹介코자 한다.

1. 伯林의 分斷相

伯林은 프러시아 제국이래 (독일의 수도로써 中부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2次 大戰에 패전 후 연합국 4대국 즉 미, 영, 불, 소에 의하여 割領, 관리되어 왔다.

1948年 6月~1949年 5月 동안의 쏘련에 의한 伯林봉쇄사건이 있은 후 西方側 3大國이 割領한 西伯林과 쏘련이 割領한 東伯林은 1950年 10月 각기 自治法을 기초하게 되었으며, 결국 1961年 8月 쏘련군에 의해 東, 西伯林間에 장벽이 구축되었다. 이제 東, 西伯林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西伯林	東伯林
관리국	서방측 3대국 (미국, 영국, 불란서)	쏘련
관리지역	미국: 6개 행정구 영국: 4개 행정구 불란서: 2개 행정구	쏘련: 8개 행정구
면적	약 480km ²	약 400km ²
인구	약 200만명	약 110만명
외국공관	59개국 (명예공관 26개국 포함)	현재 동독의 수도로써 동독과 수교한 모든 국가의 공관이 있음(북한공관포함)

2. 西伯林의 政治的 地位와 市政府

가. 1949年 5月 서독헌법의 제정시 伯林주를 적용하였으나, 西方側은 이를 유보시켰다(西伯

林은 현재도 서독政府에 관한 투표권 및 병역의 무 등이 없음).

그러나 西獨 및 西伯林은 政治外에 일반 법제도, 경제, 사회, 文化面에서 내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다만 국제조약이나 특수한 사항만이 연합국 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1971年 3月 伯林 4大國 협정이 체결되어 西伯林市政府가 공인받게 되었으며, 1972년 12월 서독-서백림간 통행자유화 협정이해 西獨은 서독-西伯林간 수송 및 통행료조르 년간 2억 마르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다. 그러나 西伯林의 政治的地位문제는 4大國協定の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 있다. 즉 쾰른側主張은 西伯林은 西獨의 一部가 아니며, 따라서 西伯林에서는 서독헌법이 作用못한다는 것이며, 西方側 주장은 西獨이 西伯林을 對外的으로 代行하고 있으며, 따라서 西伯林 市民이 해외체제 시 서독공판의 영사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라. 西伯林의회는 만18세 이상의 시민이 투표하여 선출한 14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별로는 기민당(69名), 사회당(67名), 자민당(11名)이 차지하고 있으나 기민당(S.P.D)이 자민당(FOP)과 연합하여 시정부를 조직하고 있다.

마. 現在는 사민당 출신인 서백림 시장(Stobbe) 아래 연방관계, 내무, 법무, 교육, 과학 및 예술, 노동 및 사회, 보건 및 환경보호, 가정, 청소년 및 체육, 건설 및 주택, 경제, 재무 등 11명의 작료가 있으며(16명까지 가능한), 지방조직으로는 12명의 구역시장(Bezirksbürgermeister) 아래 8개국이 있다.

바. 西獨 國會(Bundestag)에는 정당비율로 22명이 진출하나 의결권은 없다(Observers자격). 또 西獨연합의회(Bundestrat)에도 4명을 파송하나 역시 의결권은 없다(서독헌법 제144조).

사. 西伯林市の 1977년도 본예산은 155억 마르크(약 3조 7천억원 상당)였으며, 이중 70억 마르크는 서독 정부에서 보조하였다.

3. 西伯林의 일반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가. 西伯林에서는 공산당活動이 合法的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극좌파학생단체만도 130여개

이상이나 되고 있다. 그러나 4大國 협정 및 자유통행협정이해 西伯林은 실질상 西獨의 일부지역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나. 우리나라는 1973年 3月 西伯林 총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974년 12월 부서의 서독-西伯林간 우로 통행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東獨 및 東伯林에의 입국 및 방문은 아직 통제되고 있다.

다. 大戰후 4반세기 동안의 정치적 불안으로 西伯林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정책당국자들은 인구유지책에 고심하고 있다. 즉 서독정부기구의 설치, 稅制上的 혜택, 各種 박람회, 음악회, 스포츠, 극개회의 등을 유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인구 구성상 노년층만이 확대되고 있을 뿐이다.

라.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西伯林개회 박람회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 농수산물 박람회(2月)
- 2) 국제 관광박람회(3月)
- 3)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6月)
- 4) 국제 영화제(7月)
- 5) 수입 박람회(9月)

마. 1976년도 西伯林의 총 수입량은 약 30억 마르크이었고, 총 수출량은 약 49억 마르크이었다.

이중 한국→西伯林; 1,544,000마르크

西伯林→한국; 24,936,000마르크

동기간중 한국→서독; 1,017,661,000마르크

서독→한국; 51,514,000마르크

西伯林의 1976년도 1인당 GNP는 20,242마르크(약 9천 \$)였다.

4. 西伯林의 노동시장과 간호원의 수급상황

가. 西伯林의 勞動市場은 西獨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계속 악화되어 왔다. 즉 1973년 1월 말 현재 총 실업자수는 43,451명으로 실업률은 5.5%를 상회하였다(동 시기에 총 실업자수는 1,213,500명으로 실업률은 5.4%였음).

나. 이중 외국인 실업자(西伯林거주) 총수는 약 6,7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12.5%를 점하고 있으며, 아직 노동허가를 얻지 못하여 실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자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20%이

상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이중 간호요원의 경우는 실업자가 900여 명이 되고 있다.

다. 西伯林의 간호요원 및 의료요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1977년 말 현재).

- 1) 간호요원 총수 17,313명
 - 가) 간호원 9,163명(이중 외국인 : 774)
 - 나) 소아과 간호원 1,428명
 - 다) 간호보조원 2,708명(이중 외국인 : 457)
 - 라) 영, 유아 간호원 107명
 - 마) 조산원 137명
 - 바) 기타 간호보조요원 3,767명
- 2) 간호학생 총수 2,893명
 - 가) 간호학교 학생 1,737명
 - 나) 소아과 간호학생 374명
 - 다) 간호보조원학교학생 454명
 - 라) 위생사 견습생 296명
 - 마) 조산원학생 32명
- 3) 의사 총수 8,413명
 - 가) 의사 6,964명(이중 외국인 : 268)
 - 나) 치과 의사 1,449명
- 4) 의료시설
 - 가) 병원총수 131개
 - 나) 침대총수 35,270대

라. 간호요원의 수급상황

1) 종래의 병원 및 양로원의 성격을 결한 “병원”을 병원 본연의 기능과 양로원의 기능을 분리시키므로써 양로원에는 간호원의 수요를 줄이고, 병원은 시설현대화로 또한 看護員의 수를 줄이고 있다.

2) 군소병원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종합시립병원을 81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간호요원수의 축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간호요원의 대우 및 수당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간호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써 독일인의 간호원 직업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4) 도시 생활비의 증가로 여성구직자가 급격히 증가되어 그 파급효과가 전문적인 간호직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즉 간호원의 이직률이 줄어들고, 취업하지 않고 있던 또는 타업종에 종사하던 看護員 자격자가 뒤늦게 간호원으로서의 취업을 원하는 자가 끊게 되었다.

5. 서백림의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한국 看護員

가. 西伯林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서독연방 정부의 정책들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 현재 西伯林 노동성 당국 및 의대인 관리 당국은 서독인은 서백림시단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두주 공동체 회원국 시민에게도 개인영업 활동이 아닌 디코용자로써의 취업에는 별로 제한이 없다. 대체로 西伯林은 오랫동안 독일수도로서의 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외국근로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것이다.

다. 따라서 西伯林에는 노동허가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연고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끼리의 취업경쟁이 기능공에서 고급기술직에 이르기까지 높고루 나타나고 있다.

라. 특히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선은 본인만이 구직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 그들 배우자들도 체류권의 획득후는 실업자로 변하게 되는 잠재적 존재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西伯林당국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노동허가에 있어서는 최근 많이 완화해 주고 있으나 신규 노동력 유입은 극력 억제하고 있다.

마. 西伯林에 취업중인 우리 간호요원중 5년이 상근무한자(전간호요원의 약 70%)에게는 현재 계속적인 장기취업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당국은 무기한 노동 및 체류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도 서백림의 병원사정은 아직도 이들이 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병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바. 그러나 西獨의 사정은 지향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근에는 계약연장이 거부되고 또 타병원에서의 취업의 길이 막혀 귀국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서백림에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자가 부쩍 증가하였다.

사. 앞으로 西伯林에서의 한국간호원의 계속 취업은 얼마동안은 별문제 없으리라고 전망되나 만약 현재의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면 5년미만의 간호요원 일부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 현재 西伯林에는 이미 10개 이상의 간호학교가 대학기 상당수의 신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을 위하여 간호학교들이 주동이 되어 노동성당국을 통하여 관제기관 및 각 병원에 크게 압력을 넣고 있어 시립병원에서는 실제로는 한국 간호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노동성당국과 협의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6. 한국看護員의 人氣와 그 意義

가. 西伯林에서 우리 간호원의 인기는 자못 높다. 특히 외부지역과 차단된 제한된 도시에서 천여명 이상의 한국 간호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들의 훌륭한 근무태도나 생활상은 西伯林사회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큰 모델이 되고 있다.

나. 西伯林的 각 신문에서는 실심치 않게 한국 간호원에 대한 談話이나 환자들로부터의 감사문이 기고되어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우선 한국 간호원은 환자에 대한 이해력과 동정심이 많고, 특히 경노사상이 뚜렷하여 장기 입원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 환자에게는 마치 천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2)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왕성하며 언제나 예의 바르다. 즉 한국 간호원은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아무때 가나 브수가 없이도 즐겁히 봉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의가 깊어 환자를 대할 때는 늘 조심성스러우며 환자들의 불평과 반복되는 질문에도 언제나 상냥히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다. 자기 직무에 성실하고 동료에게 아주 협조적이므로 병원관리자나 병원의사 및 동료간호원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동료로써 인정받고 있다.

1) 1977년 가을 서백림 병원협회의 협찬을 얻어 조사한 한 보고서는 거의 모든 병원종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료로 한국 간호원을 지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지난 2월 서독 병원 협회는 한국 간호요원의 취업연장 허가를 주장하면서 동협회산하 각 병원관리자들의 공통된 의견서라하면서 “한국 간호원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일꾼”이라고 격찬하

고 계속 고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라. 이러한 한국 간호원의 인기는 서구 사회의 상태를 우월하는 서독의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동양, 특히 한국의 가정제도를 연구케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독일 청년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한국 간호원과 결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백림에만도 이미 한국 간호원과 결혼한 사람이 무려 삼백여쌍에 이르고 있다(1977년 말 통계).

마. 우리 간호원은 독일 사회의 간호원에 대한 사회통념을 향상시켰다. 즉 중래의 독일사회에서는 간호원의 직종이 하류직군에 속해 있었으나 한국 간호원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인기는 전체 간호원에 대한 일반통념을 향상시키고 또 보수 개선과 교육의 강화도 야기시켰다. 따라서 최근에는 간호원의 직종이 중류이상의 직군으로 부각되어 많은 젊은 여성들의 구직대상으로 변했다.

바. 이와같이 한국 간호원은 서독사회는 물론 나아가서 서구사회 전체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제는 서독인 누구나가 한국이라던 무엇보다 한국간호원의 친절한 미소를 연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로써는 이보다 더 훌륭한 민간외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7. 한국 看護員의 人적사항과 結婚문제

西伯林에 거주하는 한국 간호요원 1,000여명 중 조사대상자 951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1977년 말 현재).

가. 표에서 보면 현재 西伯林 거주 한국 간호원의 평균 연령은 약 29세이고, 이중 약 57%가 미혼이며, 기혼자라도 딸거자를 포함하면 약 70%가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병원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5년이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반면 생활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파독 간호원들의 가장 긴박한 문제는 결혼 및 가정문제라고 하겠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西伯林에서의 근무생활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귀국의욕이 감퇴되고, 또한 생활권이 서구

연령별 분포

연령구분	인원수	%
21~25세	271	28.5
26~30세	417	43.8
31~35세	131	13.8
36~40세	83	8.7
41세이상	49	5.2
합 계	951	100.0

결혼여부

구분	인원수	%
기혼	402	42.3
미혼	541	56.9
미상	8	0.8
합 계	951	100.0

현재 근무병원의 취업년수

년수구분	인원수	%
1~2년	134	19.3
3~4년	257	27.0
5~6년	224	23.6
7~8년	171	18.0
9년이상	115	12.1
합 계	951	100.0

인에 가까와져 자연히 결혼에 대한 접점이 약해진다. 따라서 독신생활에서도 별로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되고 다양한 취미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열중하게 되는 수가 많다.

2) 西伯林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기회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 간호요원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배우자 상대라면 西伯林거주의 한국청년이라고 보겠는데, 도대체 한국인 미혼청년(20이상)이라고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는 서독에서 광산근로자로 파견되어 계약 만료후 서백림으로 전입되어 오는 청년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들에게 체류 및 노동허가를 주

지 않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3) 그리고 일시귀국하여 한국에서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여도 서백림으로 와서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되기 어렵다.

4)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을 하려던 완전 귀국을 하든가 아니면 국제 결혼을 하든가 양자 택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외 근로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이들이 완전 귀국을 주저하는 이유는 귀국해서 적절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때 있다.

8. 結語

西伯林은 西獨의 축소판이며 독일인의 정신적 고향이다. 이러한 전통 깊은 대도시에서 높은 실업난과 취업경쟁속에서 특히 공산활동이 허용되는 이곳에서 우리 한국 간호요원이 인기를 끌며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이 외화퇴득의 전위대들을 아니 딴 간 의교의 역군들을 재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이 지금까지 조국을 위하여 연약한 몸으로 먼 이국에서 고생 해온 것을 가루히 여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관계기관은 이들의 국내 취업을 계획 및 추진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배우자 선택의 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알맞은 제도를 마련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파독 간호요원들도 스스로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한두 양 국가사회에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할 줄 알아야겠다. 우선 포인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여 여론을 주도하고 한인회 및 간호요원회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집결하여 분투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